

# 토정비결

1965년 8월 7일 | 양력 | 여성

토정수

1750

##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을에 황금빛 곡식을 거두듯, 귀하의 정성과 인내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뜻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건강과 재물운이 고르게 상승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

###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밝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랜 숙제처럼 미뤄두었던 일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손을 대시면 좋습니다.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며, 이는 한 해 전체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 2월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달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새로운 만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와 지혜를 얻게 되니,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

### 3월

봄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살며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이득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리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 4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처럼 귀하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힘을 얻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변화를 꾀하기에 적기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

### 5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까운 이들의 좋은 소식에 마음이 흐뭇해지며,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면,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

### 6월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달려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면, 하반기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

### 7월

지혜로운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 귀하의 직관을 믿고 따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8월

생일이 있는 달로, 한 해의 정점에서 풍성한 기운을 받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거나, 뜻밖의 선물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시면,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

## 9월

재물운이 상승하며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에 좋으며, 실속 있는 소비를 통해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

## 10월

가을의 결실처럼 한 해 동안 심은 것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목표했던 일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11월

건강운이 좋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달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새해를 위한 희망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 \*\*토정 이지함 선생의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선한 뜻을 품으시면 만복이 절로 따르리라."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